

인간의 두 본성

롬 7:15~25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고통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고통스럽습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 숙녀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기막힌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내면에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듯, 내가 율법은 못 지켰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내가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가지 본성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본능이 인간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행동을 하고 나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지배하는 선한 신이 있고 악을 지배하는 악한 신이 있어서 인간에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인간은 두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고 죄가 없는 에덴동산에서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럼, 인간에게 왜 '악'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제거할 수 없으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을 해 온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내 집을 뚫고 들어와서 집의 물건을 다 훔쳐가듯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니 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 인간에게 악한 본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하얀 천에 누군가가 빨간 물감을 뿌려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감을 뿌리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마귀가 물감을 뿌리도록 뒷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죄, 위선 같은 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많이 짓고도 동물과 같이 뻔뻔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종교, 환경, 자라온 배경의 차이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누구든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도 그 안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쫓기는 듯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인정하느냐, 늦게 인정하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아무리 동물같이 살아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3개월 정도 앞둔 사람이 제일 정직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정리합니다. 권력, 부, 명예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갈등의 시작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것이 인간의 갈등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까? 인간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인간은 허무함에 빠집니다. 아무리 나를 뒤져봐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지?”, “난 안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자꾸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면 두 가지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쾌락과 이익입니다.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고, 짓지 말라는 죄는 더 짓고 싶고, 죄를 짓고는 은밀하게 숨겨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간은 일어난 현상을 해석하지 못하면 못살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해석을 하면 뻔뻔하게 삽니다. 하지만 해석을 못하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서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로움을 느끼고,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16,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데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이 행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내 이름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 도장을 가지고 재산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버지는 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한 것처럼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균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몸에 열이 나고 여러가지 고통과 통증이 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아파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떤 이물질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열이 나게 하고 어떤 부분을 썩게 만드는 등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제거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꼬집어 내야 합니다. 이것을 꼬집어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함과 행함

이 죄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느끼지 못했는데 율법을 받은 후로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는 죄를 느끼지 못했지만 교회에 온 후로 괴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오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당황해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착한줄로 착각을 합니다. 사람을 제일 헛갈리게 하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선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사람들은 내게 박수를 치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록해서 성적인 욕망도 없고 야망도 없이 많이 베풀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추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성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야망이 용암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육, 교양, 도덕, 가정환경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지만 정말 그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속에는 원함은 있으나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인간의 몸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탄이 뿌려놓은 물감에 다 젖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 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젖은 것 같은데, 내가 추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선의 뿌리를 두셨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의 뿌리, 가능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나를 덮고 있던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 도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생산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은 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은 동적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영향력을 미치고 행동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악이 움직이는 곳은 파괴되고 악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계속 전염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악’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시킵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한 자의 고통입니다.

며칠 전에 중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선배들의 강요에 못이겨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혔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야단을 쳤겠지요. 그 다음날 아이는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이가 많고 키가 큰 이 모라는 학생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연필도 많이 뺏겼습니다. 책가방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은 특색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공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은 자살 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도피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법 아래서

이런 현상이 사도 바울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하고 싶은데 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이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한 부분을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을 없애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은 계속 싸우게 되고 이 악한 본성은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건강해야 할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나. 이러한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떼어버리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안개와 같이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중국과 대만, 아랍과 이스라엘, 남한과 북한. 이러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법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계속 싸웁니다.

영적싸움은 권투가 아닌 레슬링입니다. 권투는 떨어져서 할 수 있지만 레슬링은 둘이 서로 붙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전쟁은 레슬링과 같은 육탄전입니다. 마귀와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고 뒹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한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처절한 전쟁, 기가 막힌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에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과 저 길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합니다. 중간 지대란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절규입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내적인 투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배고프고 굶주리고 잠못자고 헐벗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고통은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경험이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열쇠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강제로 당했으면 오히려 쉽습니다. 핑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책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바울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하는 것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 본성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는 외롭고 곤고하고 비참한 인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싸움을 내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율법의 갈등, 두 본성의 갈등에서 부터 해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 집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서워서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거품으로만 채워놓고는 자신이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뜯구름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성령의 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시편 22편은 어두운 장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오면 시편 23편이 보입니다. 22편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23편의 축복이 없습니다. 7장의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8장의 영광스러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고민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영광과 회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사 죄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갈등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본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